

“청정바다서 힐링”...완도 장보고 수산물축제 ‘팡파르’

오늘부터 4일간 완도 해변공원·해양치유센터 일원 대나무 바다낚시·전복 따기·해양치유 체험 등 운영

완도 대표 축제인 '2024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5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장보고 대사의 업적 재조명·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연계해 '잡고, 먹고, 치유하는 청정바다 힐링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군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군은 프로그램과 공연, 문화 행사 등을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게 준비했다.

축제 첫날인 3일에는 '문화예술 여행'과 '남도 전통 국악 한마당'이 진행되며, 개막 행사로 가수 딘딘과 양지은, 브브걸, 슬리피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이다.

둘째날인 4일에는 '전통 노 젓기 대회', '어린이 어울림 한마당',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24m의 해조류 치유 김밥 만들기', '명품 수산물 경매 쇼', '버스킹', '청해 트로트 가요제'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날인 6일에는 '장보고 국악 대

전'과 '치유 버스킹', 폐막 행사로 'Sea You 완도'를 준비했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이자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전통 대나무 바다낚시'와 '전복 따기 체험', 어린이들을 위한 직업 체험 '키자니아Go' 등이 있다.

'전통 대나무 바다낚시 체험'은 축제 기간 중 매일 4회(오전 10시·오후 12시·2시·4시) 실시되며, 1회에 90명까지만 입장 가능하다. 40분 동안 낚시를 할 수 있고 1인당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3마리다.

잡은 물고기는 포장 또는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별도의 코너를 준비했다. 참가비는 낚시대 1개당 1만5천원이며 구명조끼와 미끼, 어망 등 필요 물품도 함께 제공된다.

체험장에서 사용될 낚시대는 체험객



완도군이 올해 장보고 수산물 축제에서도 킬러 콘텐츠로 전통 대나무 바다낚시를 준비했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방문객들이 전통 대나무 바다낚시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완도군 제공>

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나무 손잡이에 안전 밴드를 감는 등 완도

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직접 만들고 있다.

가두리 안에 넣을 물고기 준비도 한창인데, 완도 바다의 도미, 농어, 우럭 등을 위주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장보고 수산물축제를 '치유'와 접목해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해양치유 버스킹'과 '해양치유 보물 찾기', 해양치유 수산물 든 사람과 게임을 해서 이기면 선물을 받는 '해양치유 챌린지'도 진행한다.

해변공원 축제장에서는 해양치유 체험 홍보관 운영 및 각종 행사 중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이용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복과 해조류, 광어 등 싱싱한 완도 수산물을 시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청해진미 푸드마켓'과 '청정완도 특산물마켓'을 운영한다. /원도=윤보현기자



목포시가 최근 대만 자이현에서 열린 2024 한-대만 관광교류회의에 참석해 현장 홍보 마케팅을 추진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글로벌 홍보 대만 관광객 유치 '시동'

2025 한-대만 관광교류회의 유치 성과

목포시가 글로벌 홍보마케팅에 박차를 가하며 대만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대만 자이현에서 개최된 2024 한-대만 관광교류회의에 참석해 대만 6개 직할시 중 하나인 타이완시와의 교류를 위한 글로벌 현장 홍보 마케팅을 추진했다.

타이완시에는 대만의 6개 직할시 중 하나로 인구 232만을 보유하고 IT산업, 공업, 미식, 문화가 발달한 대도시다. 목포시는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양 도시 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KATA),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항공, 미디어, 여행업 관계자, 타이완 대표단은 타이완관광협회(TVA), 자이현정부, 대만관광청, 호텔·여행업 관계자, 유관기관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목포시는 한국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열리게 될 '2025 한-대만 관광교류회의'를 목포로 유치하는 패기를 올렸다.

내년 5월 중 제3차 한-대만 관광교

류회의가 목포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이 시기 대만의 관광여행업 대표들이 목포를 찾게 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이에 맞춰 목포뮤지컬플레이 등 K-POP·미식 관련 행사에 관련 대표들을 초청해 한류에 대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소개함으로써 인바운드 여행(외국인의 국내여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박홍률 시장은 "앞으로 타이완시와의 프렌드십을 지속 유지함으로써 국제공항이 인접한 공동점을 최대한 살려 무안국제공항과 타이완시와의 국제노선 및 전세계 항공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영광 출신 이정희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도전장

회원 중심 운영·5대 지방회계사회 위상 제고 공약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영광 출신 이정희(사진) 달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이 출마표를 던져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정기총회에서 제47대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한공회는 전국적으로 2만6천여명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현재 차기 회장으로는 이정희 달로이트안진회장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최은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가운데 영광 출신인 이정희 회장은 1960년 출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1983년 안진에 입사, 조사 부문 대표, 총괄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 회장은 회계업계 현안에 밝은 데다 인적 네트워크 폭이 넓은 평가를 받는다.

실제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법원인사제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정·관·언·학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이 회장은 핵심 공약으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감사, 재무자문, 세무자문 및 경영자문 등 지역별 성장계획 수립과 회계사회 주요 사업 체제 개편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중장기 회계산업 발전과 회계사 위상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회계와 사회 위원회' 구성도 공약 사항이다.

이정희 달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은 "회계는 국가와 사회의 중요 인프라이며 이는 시장과 실무를 통해 구현된다"며 "회계사의 존재와 사회적 역할이 현실상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무안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102명 투입

필리핀 실랑시 업무협약 체결 이후 3년째

무안군은 2일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102명을 영농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에 따라 단기 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인 90일 또는 5개월간 투입 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무안군과 필리핀 실랑시가 지난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3년째 총 400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 102명 중 64명은 성실 근로자로 농가에서 재입국 추천

된 근로자이며, 38명은 농가에서 추가 신청한 근로자다.

이날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고용주 농가와 함께 인권 보호,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농가로 배치돼 영농 작업에 투입됐다.

이번 입국에는 필리핀 실랑시 시의원과 직원 등 5명이 함께 입국해 계절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근무 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무안군과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김순수는 지난달 필리핀 실랑시를 방문해 양 도시의 상호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친선 결연 협약을 맺고, 농수축산·행정·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기로 약속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무안=김상호기자



함평서 멸종위기 2급 대모잠자리 발견

유기물 풍부 갯벌 등 정수지역 서식함평군이 함평나비축제장 인근 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대모잠자리(사진)를 발견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순천향대학교 한국자생동물자원활용융복합연구소는 영산강 유역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조사하던 중 함평천수변공원 인공 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인 대모잠자리 12개체를 찾아냈다. 대모잠자리는 지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으며, 갈대와 같은 수생식물이 많고 유기물이 풍부한 갯벌·연못·습지 등 정수 지역에서 서식한다.

또한 한반도 서해안·남해안이나 중국·일본에 분포하며, 날개에 흑갈색 반점 3개가 있고 등에 흑갈색 줄무늬가 있다. 함평천수변공원은 유채꽃, 매화, 목



수국, 핑크블루리, 파파스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화와 수목이 세계절을 장식하는 자연친화적 생태 공간으로서, 제26회 함평나비축제의 주요 장소인 함평엑스포공원과 연결돼 있다. /함평=김연수기자

영암군, 1회 추경예산 7천544억 확정

본예산비 16.25% ↑ ...민생·농가소득 안정 우선과제

영암군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7천544억원으로 확정했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영암군의회 의결로 확정된 제1회 추경은 올해 본예산 대비 16.25%인 1천559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15.49%, 914억원 증가한 6천815억원, 특별회계는 23.89%, 140억원 증가한 720억원이다.

영암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민생·농가소득 안정,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관광기반 구축 등을 우선 과제로 삼아 이번 추경을 마련했다.

이는 재정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중심으로 관행적 지원사업, 유사·중복 및 집행 부진 사업을 재검토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을 우선 편성한 결과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해 군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해남군 "사통팔달 경제도시 만들자"

'제51회 해남군민의 날'서 미래해남 비전 제시

해남군이 사통팔달 전국으로 통하는 살기좋은 경제도시를 미래해남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장기성장의 동력을 육성하는데 군정의 역할을 집중하기로 했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군민과 향우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명현관 군수는 "민선 8기의 반환점을 지나는데 올해는 해남의 20년, 3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해남의 미래세대는 더 이상 땅끝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 유라시아의 시작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기성장의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KTX해남

노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 3대 역점사업을 비롯해 미래세대의 먹거리가 될 장기성장의 동력을 육성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명 군수는 "해남의 미래비전으로 첨단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세계적 관광레저도시에 관광객이 북적이는

곳, '사통팔달 전국으로 통하는 살기좋은 경제도시'를 제시한다"며 "군민과 향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남발전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강조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더 희망찬 해남"을 주제로 열린 군민의 날 기념식은 군민과 향우들이 화합해 균형 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기념행사와 함께 균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올해 자랑스러운 해남인에는 박진복 향우가 선정됐으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균형발전 유공자 38명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해남=박필용기자

